

콤플렉스 극복 서사로서의 〈이공본풀이〉 연구

조홍윤*

차례

1. 서론
2. 자료개관
3. 아버지의 부재에 기인한 할락궁이의 심리문제와 그 ‘파에톤 콤플렉스 (Phaethon complex)’적 특성
4. 할락궁이의 신성획득 과정을 통해 본 콤플렉스 극복의 의미
5. 결론

〈논문 개요〉

본고는 신화의 원형성에 비추어, 〈이공본풀이〉에서 보이는 할락궁이의 거친 행동양상이 인간 보편의 심리문제인 콤플렉스와 결부되어 있음을 구명하고자 한 것이다. 이에 양육 배경이나 성장 환경에 의한 애정결핍이 문제가 되는 파에톤 콤플렉스의 개념으로써, 친부의 부재상황에 기인하여 겪는 할락궁이의 심리적 문제와 그로 인해 추동되는 할락궁이의 서사를 세세하게 살펴보았다. 이를 통하여 할락궁이가 보여주는 거친 행보의 이유가 그의 콤플렉스에 의한 것일 수 있으며, 그러한 콤플렉스의 극복이 이루어지는 지점에서 할락궁이의 서사가 성공으로 귀결되어 신성을 획득하게 됨을 확인하였다. 중요한 점은 할락궁이의 서사에서 신성의 획득과 콤플렉스의 극복이 이루어지는 지점이, 그가 다시금 어머니의 현실 세계로 돌아와 죽음의 상태에 놓여있던 어머니를 재생시킨 순간이라는 점이다. 할락궁이는 스스로가 부정하고 떠난 공간 속으로 다시 돌아와, 결국은 그 공간 속에서 자신을 억압했던 요소들을 제거함으로써 콤플렉스를 극복할 수 있었다. 이는 콤플렉스를 유발하는 환경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현실적 삶의 공간이 지닌 가치를 깨닫고 그러한 현실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처럼 인간의 심리적 문제는 외부적인 조건에만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 할락궁이의 서사가 보여주는 대로, 외부적인 조건이나 타인의 인

* 건국대학교 박사학위과정 수료

정을 통한 만족감으로 콤플렉스를 극복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중국에는 스스로의 결핍을 인정하고 직시하며, 그러한 결핍을 채워 나가기 위한 진지한 노력이 있어야 함을, <이공본풀이>는 할락궁이의 콤플렉스 극복과 신성 획득의 과정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주제어 : 이공본풀이, 할락궁이, 파에톤 콤플렉스, 콤플렉스, 신화

1. 서론

<이공본풀이>는 제주도 큰곳에서 초공맛이 다음 제차인 이공맛이에서 구연되거나, 불도맛이에서 불리는 서사무가로서, 주화관장신(呪花管掌神)의 내력에 대해 이야기하는 신화이다. 그와 관련한 선행 연구로서는 계통론적 연구나, 구비서사시로서의 연구, 여성학적 주제의 연구, 의례와 제차적 차원에서의 신화연구, 특징적인 화소인 주술적 힘을 지닌 꽃에 대한 연구나, 친부탐색 화소에 대한 연구 등 다양한 시각의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¹⁾ 이처럼

1) <이공본풀이>에 대한 선행연구로는 서대석, 「서사무가연구」, 『국문학연구』 제8호, 서울대학교 국문학 연구회, 1968 ; 장주근, 「서사무가의 시원과 민속문예사상의 위치」, 『한국문화인류학』 제5집, 한국문화인류학회, 1973 ; 사재동, 『불교계국문소설의 형성과정연구』, 아세아문화사, 1977 ; 강정식, 「제주무가 이공본의 구비서사시적 성격」,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석사학위논문, 1987 ; 김대숙, 「여인발복 설화의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8 ; 이수자, 「제주도 무속과 신화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9 ; 윤찬주, 「<이공본풀이>의 서사구조 연구」, 인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1 ; 이수자, 「한국 무속신화에 나타난 모신상과 신화적 의미」, 『이화어문논집』 제16집,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어문학회, 1998 ; 오대혁, 「「안락국태자경」과 「이공본풀이」의 전승관계」, 『불교어문논집』 제6집, 한국불교어문학회, 2001 ; 김창일, 「이공본풀이계 서사체 연구」,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 정진희, 「제주 무가 「이공본풀이」의 신화적 의미에 관한 일고찰」, 『국문학연구』 제7호, 국문학회, 2002 ; 노영근, 「신화와 친부탐색 모티프」, 『어문학논총』 제22집, 국민대학교 어문학연구소, 2003 ; 류효철, 「서천꽃밭의 형상과 의미 연구 : <이공본풀이>와 <삼승할망본풀이>를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 이수자, 「무속의례의 꽃장식, 그 기원적 성격과 의미」, 『한국무속학』 제14집, 한국무속학회, 2007 ; 신연우, 「여성 담담층 관점에서의 <초공, 이공, 삼공본풀이>의 문학·사상의 의미망」,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제21호,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0 등이 있다.

풍성한 연구 성과에 힘입어 〈이공본풀이〉의 전반적인 성격이나 의미에 대해서는 이미 대부분의 구명이 이루어진 것이나 다름없다. 다만 조금의 아쉬움이 있다면, 아직 주인공인 할락궁이가 보여주는 다소 과도한 폭력성이나 잔인성의 이유에 대해서 충분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공본풀이〉의 서사는 불편하다.²⁾ 이 불편함은 〈이공본풀이〉의 주인공 할락궁이가 친부의 부재라는 가장 원초적인 결핍의 상황에 처해있다는 것과 〈이공본풀이〉의 서사가 그러한 결핍의 상황으로부터 추동된 할락궁이의 행보를 통해 흘러가고 있다는 점에서 기인한다. 그러한 중에 할락궁이의 폭력성이나 잔인성 등 그의 심리적 갈등의 국면들이 서사의 표면에 여실히 드러나게 되는 점도 그러한 불편함을 가중시킨다. 물론 〈바리데기〉나 〈당금애기〉, 〈주몽신화〉 등 수많은 신화에서 부모의 존재가 부재한 상황이 설정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부모의 부재 그 자체가 서사의 주인공을 추동하는 경우는 〈바리데기〉와 〈이공본풀이〉로 좁혀질 수 있다. 또한 〈바리데기〉의 경우는 주인공이 부모에게서 버려지는 상황 자체가 서사를 추동하고는 있으나, 그 서사를 이어가는 주인공의 행보는 일관적인 ‘포용’의 흐름을 띠고 있어 불편함이 크지 않다. 그에 반해 〈이공본풀이〉의 할락궁이가 보여주는 모습은 거칠고 좌충우돌하여, 그의 심리적 갈등이 그 행보에 그대로 반영되는 양상으로서 강렬한 동조나 거부가 일어나게끔 한다.

〈이공본풀이〉를 대하며 느끼는 불편함이란 할락궁이의 결핍에 대한 공감일 수도 있고, 결핍으로 인한 할락궁이의 거친 행동에 대한 것일 수도 있으며, 할락궁이의 결핍이 해소되는 과정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이루어지

2) 이는 연구자로서 〈이공본풀이〉를 대할 때의 느낌이라기보다 서사문학 작품을 접하는 독자의 입장에 의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여타의 본풀이에 비해 〈이공본풀이〉는 그러한 점이 특히 두드러지는데, 달구어진 술에 어머니의 손을 지지는 할락궁이의 폭력적 행위, 아버지를 만나 아버지 무릎에 앉아 배변하는 시늉을 하는 할락궁이의 모습 등에서, 서사작품의 주인공으로서의 비상식적인 주인공의 형상에 불편함을 느끼게 되는 점을 말한다.

지 않고 있는 막연함에 기인한 것일 수도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공본풀이〉의 서사, 원초적 결핍의 상황을 해결하고 신성을 획득해내는 할락궁이의 서사에 대한 세심한 고찰을 통해 그러한 불편함을 해소해보고자 한다.

신화는 신에 관한 이야기이며, 태초에 창조된 사건, 특히 인간 생활에서 본질적인 의미를 가진 자연현상이나 사회현상, 그리고 인류문화 등에 관한 기원과 질서를 설명하되, 이것들이 오늘날 인간의 행동에까지 구속력을 가지는 동시에 규범이 될 수 있는 이야기이다.³⁾ 다시 말해 신화는 인간의 삶의 문제에 대한 원형적 상징과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할락궁이가 지닌 결핍의 문제 역시 인간 보편의 결핍에 대한 원형으로서 이해가 가능하다고 가정해 본다.⁴⁾ 결핍에 의한 인간의 심리적 고통에 대한 문제는 ‘콤플렉스’의 문제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할락궁이가 자신의 심리적 문제를 해결하고 신성을 획득하는 과정을 통해, 인간의 콤플렉스

3) 이지영, 『한국의 신화이야기』 도서출판 사군자, 2003, 12쪽.

4) 이처럼 신화적 원형성을 전제로 하여 이 글의 논의를 풀어가는 입장으로서는, 〈이공본풀이〉 외에 『월인석보』의 〈안락국태자경〉이나, 고소설 〈안락국태자전〉 등 그와 비슷한 서사를 보여주고 있는 다른 작품들은 논의에서 배제하도록 하겠다. 신화로서 민중가운데 구전되어 온 서사무가로서의 〈이공본풀이〉가 신화적 원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것과는 달리, 그 외의 동계 서사물은 그러한 원형성을 담보할 구전의 과정을 거쳤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똑같이 구전의 과정을 거친다 해도, 신화·민담·전설을 분류하는 것은 그 셋이 분명한 장르적 차이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동계 서사로 볼 수 있는 텍스트라 해도 그 장르가 나누어진다면 각각의 장르에 맞는 서로 다른 분석틀이 요구된다. 하물며 고소설과 신화를 같은 층위에서 분석하려 한다면, 본고와 같이 신화적 원형성을 통한 인간 심리의 문제를 다루는 논의보다는 기존에 행해졌던 서사계통에 대한 연구들에 보다 적합한 묶음이라 보인다.

〈이공본풀이〉와 〈안락국태자경〉 등의 동계 서사물을 묶어 연구한 오대혁의 경우에도, 이러한 차이에 대한 언급을 찾을 수 있다. 〈이공본풀이〉가 대중들의 종교적 요구에 가까운 형태로 형성되었기에 인물들의 행위가 조약함을 보인다는 그의 언급은, 신화텍스트로서 〈이공본풀이〉 속의 할락궁이가 보여주는 거친 행동방식이 신화를 향유하는 대중의 원형적 심리를 더 적실히 드러내고 있다는 뜻으로 이해된다. - 오대혁, 앞의 논문, 231-232쪽.

에 의한 문제와 그 극복에 대한 원형적인 깨달음을 얻을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또한, 그러한 깨달음을 통해 <이공본풀이>의 서사도 더 이상 불편한 서사가 아닌 위로의 서사로서 기능할 수 있게 될 것이라 기대된다. 이는 신화텍스트를 이해하는 정통의 연구방법이라 할 수는 없지만, 신화의 이해를 통해 삶을 이해하고, 더 풍요로운 인간 삶을 위한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겠다.

2. 자료개관

여타의 서사무가와 마찬가지로 <이공본풀이>도 여러 이본으로써 전해지고 있다.⁵⁾ 그 중 안사인본 <이공본풀이>의 경우, 여러 편의 <이공본풀이>에 나타나 있는 내용들을 두루 포함하는 한편으로, 서사의 진행과 내용의 제시가 명료하다고 생각된다.⁶⁾ 이에 더해 본고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할락

5) 대강의 이본에 대한 목록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번호	자 료	구연자	출전 및 기타 사항
1	이공본푸리	박봉춘	『조선 무속의 연구』 상, (적송지성·추업용, 1937)
2	이공본풀이	현금순	『제주무가 이공본의 구비서사시적 성격』, (강정식, 1987)
3	이공본	조홀대	『제주도 무가 본풀이 사전』, (진성기, 1991)
4	이공본	고산용	『제주도 무가 본풀이 사전』, (진성기, 1991)
5	이공본풀이	한생소	『제주도 큰굿 자료』, (1994)
6	이공본		『풍속무음』, (현용준, 1994)
7	이공본풀이	이승순	『제주도무속신화』, (문무병, 1998)
8	이공본풀이	이중춘 김윤수	『한국음악』 31, (강정식, 2000)
9	이공본풀이	고대중	『제주도 무속과 서사무가』, (장주근, 2001)
10	이공본풀이	안사인	『제주도무속자료사전』, (현용준, 2007) *초판은 1980년 간행

궁이의 심리적 갈등에 따른 행동방식들을 잘 보여주고 있는 점도 장점으로 꼽을 수 있다. 이에 이를 본고의 논의를 이끌어가는 주요 자료로 삼을 것이며, 필요에 따라 그 밖의 이본들을 적절히 활용해 가도록 할 것이다. 우선 안사인본 〈이공본풀이〉의 서사를 간략하게 제시한다.

(1) 김진국과 임진국은 친구 사이로 둘 다 자식이 없어 절에 기차 치성을 하였는데, 김진국은 가난한 반면 임진국은 부유했기에 임진국이 마련한 제물로써 함께 공양한다.

(2) 김진국은 아들 원강도령을 낳고 임진국은 딸 원강암이를 낳아 구덕혼사로 배필을 맺는다.

(3) 둘이 혼인하여 나이 20에 원강암이가 잉태하였는데, 원강도령이 서천꽃밭에 꽃감관 벼슬을 살려 가게 된다.

(4) 둘이 길을 가던 중에 임신 중인 원강암이가 밭에 병이 나 함께 갈 수 없게 되자, 남편에게 자신을 자현장자의 집에 종으로 팔아두고 떠나라 한다.

(5) 원강암이를 장자 집에 판 원강도령이 태어날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고 본메(증표)를 남긴 채 떠난다.

(6) 남겨진 원강암이는 장자의 동침 요구를 거절해가며 할락궁이를 낳아 기른다.

6) 이와 관련하여 안사인본 〈이공본풀이〉가 조사자와 구연자에 의해 다듬어진 흔적이 보이므로 주요 자료로서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 실제로 구연자 안사인은 1959~1967년間に 현용준 교수와 함께 제주도 서사무가를 보존하고 알리기 위해 『제주도무속자료사전』의 출간에 큰 힘을 기울인 바 있다. 그러한 의욕적인 작업의 과정에서 어느 정도 서사와 표현들이 다듬어졌을 가능성을 부인할 수 없지만 구연자 안사인은 당시에 큰심방으로서 충분한 공신력을 확보하고 있었고, 그가 계승하여 다듬은 〈이공본풀이〉 역시 충분한 공신력을 지닐 수 있다고 본다. 오히려 여타의 이본에 비해 정제되어 있으면서도 영풍한 서사가 덧붙이지 않고 과도한 표현은 자제한 경향이 있어 논의를 풀어나가는 주요 자료로 삼을 만하다.

(7) 장자에게 갖은 시련을 당하며 자라던 할락궁이는, 어머니를 위협하여 아버지의 소재를 알아낸 후 서천꽃밭으로 떠난다.

(8) 어머니가 싸준 메밀범벅으로 장자의 개를 따돌려가면서 길을 가던 할락궁이는 무릎까지 잠기는 물, 잔등까지 잠기는 물, 목까지 잠기는 물을 지나 서천꽃밭에 이른다.

(9) 서천꽃밭에 도착하여 수양버들 윗가지에 올라간 할락궁이는 아버지의 관심을 끌기 위해 연못에 자신의 피를 떨어뜨리고, 이에 부정을 탄 연못이 마르는 기사가 일어난다.

(10) 연못의 변고에 놀라 할락궁이를 찾아온 원강도령이 그의 정체를 묻자, 할락궁이는 자신이 원강도령의 아들임을 밝힌 후 얼레빗 반쪽으로써 증표를 내어 아들로 인정받는다.

(11) 원강도령이 할락궁이에게 물 세 번을 건넌 일이 있느냐 묻고, 그것이 어머니가 자현장자로부터 재차 삼차의 위협을 견뎌가며 죽어간 상징임을 설명해준다.

(12) 할락궁이가 원강도령으로부터 수레멸망약심꽃과 도환생꽃을 얻어 장자일가를 몰살하고 어머니를 되살린다.

(13) 원강암이와 할락궁이 모자가 서천꽃밭으로 들어간다.

이와 같이 대강의 서사를 정리한 상태에서, 다음 장에서는 할락궁이의 결핍에 의한 심리적 문제들이 보이는 지점들을 세세하게 짚어나가며, 콤플렉스 극복의 문제에 대한 시각을 중심으로 〈이공본풀이〉의 서사를 분석해 나가도록 하겠다.

3. 아버지의 부재에 기인한 할락궁이의 심리문제와 그 '파에톤 콤플렉스(Phaethon complex)'적 특성

〈이공본풀이〉의 서사에서 할락궁이가 겪게 되는 억압의 문제는 서사의 전반부, 장자의 집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집중적으로 드러난다. 아버지가 없는 노비의 자식으로서 겪게 되는 모멸감과 위협, 그에 대한 할락궁이의 심리적 갈등이 문제시되고 있는 부분인 것이다. 이러한 심리적 갈등상황을 콤플렉스의 차원에서 조명하고자 한다면,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로서 '친부의 부재 상황'을 들 수 있다. 어미인 원강암이를 위협하여 아버지의 정체를 알아내고, 아버지를 찾아 떠남으로써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할락궁이의 서사에 큰 즐거움을 형성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친부의 부재상황이 할락궁이의 움직임에 추동하는 문제의 핵심이란 것을 쉽게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친부의 부재상황에 대응하는 할락궁이의 심리적 문제를 어떻게 콤플렉스의 관점으로 개념화할 수 있을지가 문제이다.

원강도령과 원강암이의 결연은 부모들의 '구덕혼사'에 의한 정당한 것이었고, 본디 할락궁이의 잉태 또한 정당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나 세상에 태어난 할락궁이가 감당해야 했던 자신의 위치는 아버지가 없는 노비의 자식으로서, '사생아'에 가까운 존재였다. 결국, 서사의 초반에 할락궁이가 자현장자로부터 받게 되는 억압은, 장자의 악행으로서 후반부의 장자정치에 대한 원인을 제공하는 동시에, 아버지의 부재에 의해 지니게 된 할락궁이의 심리적 모멸감과 억눌림을 형상화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할락궁이의 문제가 아버지의 부재 뿐 아니라 미천한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서사의 맥락상 할락궁이가 장자집의 노비로서 태어나게 된 원인이 아버지 원강도령이 모자를 떠났던 것에 기인한다고 보았을 때에는, 할락궁이의 신분에 의한 문제도 아버지의 부재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하겠다.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아버지의 자리에 상전이 놓인 상황아래서, 친부의 애정과 지지 대신 상전의 증오와 억압을 받아야 했던 할락궁이는, 자신의 존재적 정당성을 찾지 못한 채, 장자의 괴롭힘이 더해갈수록 자신이 버려진 존재인 것만 같은 절망, 혹여 자신이 잘못 태어난 존재가 아닐까 하는 심리적 갈등을 겪어내야만 했을 것이다. 이처럼 사생아 아닌 사생아로서의 현실에 기인하여 생기는 할락궁이의 심리적 문제에 대하여는 ‘파에톤 콤플렉스’의 개념으로서 설명이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프로이트의 제자로서 가장 먼저 파에톤 콤플렉스의 개념을 제시한 바 있는 메리즈 쇼아지(Maryz Choisy)는 자신의 환자들을 면밀하게 살펴본 결과, 사생아로 태어난 환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스스로를 자책하며 느끼는 불안과, 태어난 것에 대해 느끼는 죄책감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고 이를 ‘파에톤 콤플렉스’라고 이름 붙였다.⁷⁾ 파에톤 콤플렉스(Phaethon complex)란 양육 배경이나 성장 환경에서 비롯된 애정 결핍 때문에 지나치게 타인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에 사로잡힌 증세를 말한다.⁸⁾

파에톤 콤플렉스의 모델이 된 그리스 신화 속의 파에톤은 태양신 헬리오스(Helios)와 클리메네(Klymene)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다. 헬리오스는 매일 아침 태양 마차(Chariot of the sun)를 몰고 바다 동쪽에서 빛을 뿌리며 솟아올라 하늘을 가로질러 저녁에는 바다 서쪽으로 내려온다. 태양 마차를 모는 일은 너무나 위험해서 신들의 왕인 제우스도 겁낼 정도다. 혼외 사생아로 태어난 파에톤은 자신의 아버지인 태양신 헬리오스에 대한 이야기를

7) 해당 인용은 원 텍스트를 찾을 수 없는 관계로 인터넷상에 올려진 주소로써 서지사항을 대신 전한다. 인용된 내용은 심리학 전문가에 의해 ‘파에톤 콤플렉스’의 문제가 다루어진 몇 없는 글 중 하나이다. 곽금주, 「인정받고 싶은 심라: 파에톤 콤플렉스」, <http://blog.daum.net/whatayun/6994209> - 검색일자: 2013. 8.3. 6:30 PM.

8) 미래컨텐츠창작연구소, 『콤플렉스 - 세상을 보는 프레임』, BOOK21, 2013, 8쪽.

들으며 홀어머니의 손에 의해 자라게 된다. 그 과정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했음은 물론이다. 그러던 어느 날 파에톤은, 아버지가 태양신이라는 파에톤의 말을 믿지 않은 그의 친구이자 제우스의 아들 에파포스(Epaphus)에게 놀림을 받고서 자신의 말을 증명하기 위해 길을 떠난다. 아버지 헬리오스는 장성한 아들을 알아보고 파에톤이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주어서 자신이 아버지임을 증명하겠다고 스틱스(Styx) 강에 맹세했다. 이에 파에톤은 하루만 아버지의 태양마차를 몰고 하늘을 돌 수 있도록 요청한다. 헬리오스는 아들의 소원이 무모한 줄 알면서도 스틱스 강에 한 맹세를 어길 수 없어 허락해야만 했다. 이내 밤이 물러가고 파에톤은 의기양양하게 마차를 몰고 출발했으나 태양 마차의 말들을 전혀 다스릴 수 없었다. 말들은 파에톤의 미숙한 통제를 벗어나 하늘 위로 치솟기도 하고 지상으로 근접하면서 땅을 태우기 시작했다. 궤도를 벗어난 태양마차 때문에 강과 바다가 말라버릴 정도였고, 지상은 온통 불바다가 된다. 태양마차의 불길에 괴로워하던 대지의 여신이 제우스에게 간청하자, 제우스는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파에톤에게 번개(thunderbolt)를 던졌고, 파에톤은 에리다누스 강(뒤의 포 강)의 하구로 떨어져 죽음을 맞게 된다.⁹⁾ 이처럼 파에톤은 아버지의 아들로 인정받기 위해 무모하게 고집을 부리다가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는 인물이다. 이러한 파에톤의 형상을 모델로 하여 정립된 파에톤 콤플렉스는 ‘사생아 콤플렉스’로도 지칭된다.

이에 대해 정신의학자 알프레드 아들러(Alfred Adler)는, “자신이 버림받았다고 느끼는 아이는 모든 것을 소유하고, 먹고, 듣고, 보고, 알아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힌다. 그는 모든 아이들을 앞질러야 하고 모든 것을 혼자서 이루어야 한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온갖 거창한 환상들이 가득하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고 싶어 하며, 자신을 영웅이라 상상하고 귀한

9) 오비디우스 저, 이윤기 역, 『변신이야기』1, 민음사, 1998, 61-82쪽.

가문 출신이라 믿으며 심한 학대를 받고 있다고 여긴다. 마치 신데렐라처럼 말이다. 강렬하고 불안정한 야망이 틀림없이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근거가 이미 마련되어 있는 셈이다. 사악한 본능이 발현하고 강화되는 것도 바로 이 시점에서다. 아이는 자기 소망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에 탐욕과 시샘이 더 이상 억제하지 못할 정도까지 자라난다. 그는 어떻게든 멋진 성과를 올리고 싶어 조바심을 치며, 그 결과 다루기 힘든 성마른 아이, 자기보다 어린 아이들에게 사납게 굴고 어른들에게는 거짓말을 하며 강한 불신이 담긴 눈으로 모든 사람을 경계하는 아이가 된다.”라고 파에톤 콤플렉스의 증세를 정리한 바 있다.¹⁰⁾

이처럼 파에톤 콤플렉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극단적인 자기 이상화를 통한 무모한 자기 과시, 성취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존재를 부각시키고자 하는 욕망이다. 파에톤 형 인간은 주변의 충고를 뿌리친다. 충고를 청하거나 받아들이는 일은 이상적인 자기상의 구축에 반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신이 수많은 사람들이 어우러져 사는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사실 그리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기를 거부함으로써 우울성을 확보하려 애쓴다.

메리즈 쇼아지(Maryz Choisy)에 의해서는 그 증상적 특징이 보다 세세하게 열거된 바 있는데, 비정상적 민감성, 고독과 부적응, 만성 우울증, 조바심과 그에 기반한 공격성 또는 그 정반대의 특성, 신경증적 소심증, 다재다능함에 대한 강박증, 여러 가지 형태의 사랑에 대한 충동적 욕망, 자기 파괴적 행동 등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하였다.¹¹⁾

이와 같은 파에톤 형 인간의 특징들은 실제 작품 속 할락궁이의 모습을 통해서도 확인되고 있다. 기본적으로 어머니인 원강암이에게 계속해서 아

10) J. 모리스 저, 박웅희 역, 『콤플렉스 걸림돌인가 디딤돌인가』, 성바오로출판사, 1997. 160-161쪽.

11) J. 모리스, 같은 책, 161쪽.

버지의 존재를 묻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이는 부정적 현실 속에 부재하고 있는 아버지의 존재와 자신을 동일시함으로써, 현실에서 찾지 못한 자존감을 혈통에 기대어 얻기 위한 것이다. 그러하기에 부재함으로써 심리적 문제의 원인을 제공한 아버지는 원망의 대상이 되는 동시에, 할락궁이가 추구하는 이상적 자기상의 모델로서 동경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점은, 아들러가 언급한 파에톤 콤플렉스의 증상 중, ‘자기 자신을 귀한 가문 출신이라 여긴다.’라고 하는 부분과 관련될 수 있다.

그 밖에도 서사 전반에 걸친 여러 상황 속에서 할락궁이의 콤플렉스적 증상들을 엿볼 수 있다. 다음은 박봉춘본 <이공본풀이>에서 할락궁이가 장자로부터 받게 되는 억압이 ‘과업’의 형태로 제시되고 있는 부분이다.

장자가더쾌롭게하겠다하야, 좁씨한심을주며
 깊은산중에남을베어서밭을멘들고
 하를에다뿌리라하니
 깊은산중에가서남을베고밭을멘들더니
 대뚝이와서, 나무를끈코밭을가라주니
 씨를뿌리고도라와서, 장자외계말한즉
 장자말이오날은고초일이라잘못뿌렸스니
 좁씨를다시주서오라하니
 할락궁이가조밭에가서보니
 계엄의떼가모여드러, 한곳에모여두었스니
 겁버하야갖고오니, 장자말이
 좁씨를세여본즉, 좁씨한방울이부족하니
 다시가서찾어오라하니
 장삼계엄이가물고왓스니, 갖고가서드리고¹²⁾

위의 내용은 할락궁이가 장자로부터 나무 오십 바리를 하고, 새끼 오십

12) 적송지성·추엽음, 『조선무속의 연구』 상, 동문선, 1991(1937년 초판), 262쪽.

등을 끄는 과중한 과업을 받고서 이를 수월하게 해낸 후에, 장자의 심술이 더해져 더욱 어려운 일을 맡게 되는 부분이다. 장자는 처음부터 할락궁이 모자를 괴롭힐 심산으로 도저히 해결 불가능한 임무를 준다. 그러나 할락궁이가 신이한 능력에 힘입어 그 임무를 해결해내자, 점점 더 어려운 임무로서 할락궁이를 괴롭히고자 한다. 하지만 할락궁이는 조력자들(돼지, 개미)의 도움을 받아 그 모든 과업을 해결해내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는 신화적인 맥락으로서 할락궁이의 신이성을 돋보이도록 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을 할락궁이의 성격을 보여주는 부분으로 생각한다면,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맡겨도 기어이 해내어 인정받고자 하는 집착적 인정투쟁의 모습으로 볼 여지가 있다. 실제로 원문을 보면, 장자의 부당한 명령에 대한 반항이나 절망의 과정 없이, 주어진 임무에 당연하다는 듯 착수하는 할락궁이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그렇게 보면 이는 인정에 대한 욕구에 매달려, 주어지는 일의 가능성이나 어려움을 고려치 않고 무조건적으로 감당해내려 하는 파에톤 콤플렉스적 특성을 보여주는 부분이라 볼 수 있는 것이다.

안사인본 〈이공본풀이〉에서는, 아버지의 소재를 알아내기 위해 어머니를 겁박하는 할락궁이의 모습이 특히 주목된다.

흐를날은 7랑비가 술술 느리는 날,

“어머님아 어머님아 콩이나 한뿔 보까줍서.”

(중략)

“어머님아 어머님아 저 올래에 누게 오란 불림수다. 어서 나고 오라 봅서.”

저 올래에 나고 보니 아무도 엇어지고, 할락궁이는 콩 짓단 배수기를 정짓
방석 알레레 곱져두고

“어머님아 어머님아, 콩이 문딱 캄시메 혼저 짓입서.”

배수기를 못 훑안 이레저레 허여가난,

“아이고 어머님, 콩이 문딱 캄수게 손으로라도 혼저 짓입서.”

손으로 짓젠 혼난 할락궁이가 어멍 손을 꼭 누르뜨명,

“어머님아 어머님아, 이제도 바른 말 못하쿠가? 우리 아자지 간 딜 굴
아줍서.”¹³⁾

이와 같은 부분은, ‘효행서사시’¹⁴⁾라고 정의되기도 하는 <이공본풀이>의 한 장면으로서는 다소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다. 아버지를 찾아갈 방법을 알아내기 위해 자신의 어머니에게 고문에 가까운 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할락궁이의 모습을 그저 신화적 맥락에 따라 ‘상층세계로 나아가기 위한 과단성’ 정도로 이해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것이다. 이는 오히려 할락궁이가 파에톤 콤플렉스적 공격성을 드러낸 것으로 판단함이 자연스럽다. 앞서 말했듯이, 파에톤형 인간은 이상화된 자기상의 구축에 강박적으로 매달리고, 그러한 목표의 달성을 향한 조바심이 공격성으로 표출되기도 한다. 이에 할락궁이는 ‘친부의 부재’라는 부정적 현실에 대한 반작용으로, 이상세계의 아버지를 찾는 일에 강박적으로 매달리고 있으며 이상적 아버지상의 획득에 방해가 되는 것들을 제거해 나가는 데 수단을 가리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는 친부의 부재에서 기인한 심리적 결핍을, ‘현실에 부재하는 아버지의 이상화 -> 이상화된 아버지와 자신의 동일시 -> 자존감의 획득’의 과정을 통해 채우고자 하는 강박이다. 이처럼 자신의 부정적 현실을 부정하고, 이상세계 속의 자신을 추구하게 되면서, 파에톤형 인간들은 실질적인 삶의 기반을 스스로 파괴할 위험을 안게 된다. 이상적 자기를 향한 무모한 도전과 성취욕이 현실적인 자기 존재를 망각하도록 만들 수 있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할락궁이의 경우에도 부정적 현실을 배제하고, 이상세계 속의 자신을 찾으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13) 현용준, 『제주도무속자료사전』(개정판), 도서출판 각, 2007, 111-112쪽.

14) 조동일, 『동아시아 구비 서사시의 양상과 변천』, 문학과 지성사, 1997, 101-102쪽.

“이 손 노라. 곁아 주마”
 손을 노난, 어머니이 말을 흐뵈,
 “너의 아버지는 서천꽃밭 꽃감관 꽃생인이 뉘여진다.”
 “어머님아, 계건 내 아바질 찾아가커메 어머니이 죽는 혼이 셔도 나 간 딜
 이르지 맙서.”¹⁵⁾

위의 인용을 보면, 할락궁이는 자신의 떠남이 어머니의 죽음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는 듯 보인다.¹⁶⁾ 그러나 어머니가 죽게 되더라도 자신의 간 곳을 발설하지 말라는 당부로서 비정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이를 신화적 맥락으로 이해하자면 납득이 가는 일일 수 있다. 현실의 여건에 얽매이지 않고 더 높은 차원의 삶을 추구하는 것은 범인으로서로는 도저히 어려울 만큼 대단한 용기를 필요로 하는 것일 수 있다고 말이다.¹⁷⁾ 그러나 콤플렉스의 서사로서 이를 다시 보면, 전혀 다른 맥락의 문제가 된다. 할락궁이는 이상세계의 아버지로 표상되는 이상적 자기상의 구축을 추구하면서, 어머니의 세계로 표상되는 현실적 삶의 기반을 철저히 배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당연한 말일 수 있지만, 어머니의 세계를 떠나 아버지를 찾아 나서는 부

15) 현용준, 앞의 책, 112쪽.

16) 이러한 견해와 맞닿는 견해로서, 장자의 가족을 몰살시킨 할락궁이의 행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논의가 눈에 띈다. “이러한 집단 학살이 왜 일어나야 했던가? 이에 대해서는 ‘어머니를 위해 복수를 해서 자식의 도리를 다했다’는 ‘효행’의 관점에서 이해한 기존의 해석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학살이 어머니를 죽인 것에 대한 복수라면 그 복수의 칼끝은 할락궁이 자신을 향해서도 겨누어져야 한다. 아버지가 누군지 알기 위해 어머니의 손을 뜨거운 철판에 지지는 불효를 저질렀고, 부친 탐색의 길을 떠나면서 차마 죽을지언정 장자에게 자신이 간 곳을 이르지 말라고 어머니에게 ‘명령’하여 죽음의 동기를 제공한 할락궁이가 아닌가?” - 정진희, 앞의 논문, 8-9쪽.

17) “하늘의 선택을 받아 신이 된다는 것, 그것은 이처럼 고통스러운 일이기도 하다는 사실에 새삼 놀라게 된다. 그것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하는 일이었다. 그것을 포기하지 못할 때 길은 더더지고 마침내 주저앉게 된다. 포기하고 가야 비로소 길이 열린다.” - 신동훈, 『살아있는 우리신화』, 한겨레출판, 2004, 127쪽.

분까지를 볼 때에, 할락궁이의 서사는 파에톤 콤플렉스의 원형이라 할 수 있는 파에톤의 서사와 유사한 모습을 보여준다. 할락궁이와 마찬가지로 인간들의 현실세계가 아닌 이상세계의 신을 아버지로 둔 파에톤은, 사생아라는 놀림을 받고서 자신이 태양신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얻기 위해 아버지를 찾아 나선다. 이 또한 사생아로서 지닌 심리적 결핍을, ‘현실에 부재하는 아버지의 이상화 -> 이상화된 아버지와 자신의 동일시 -> 자존감의 획득’을 통해 채우고자 하는 과정이다. 이처럼 아버지를 찾아 나서는 부분에 이르기까지 할락궁이와 파에톤의 서사는 매우 유사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후로 이어지는 둘의 서사는 아주 다른 방향의 결말을 맺게 된다. 할락궁이가 서천꽃밭의 꽃감관으로 좌정하게 되는 것에 반해, 파에톤은 비참한 죽음을 맞게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신화적인 맥락으로서 파에톤의 서사가 실패의 서사라면, 할락궁이의 서사는 성공의 서사라고 할 수 있으며, 이를 콤플렉스의 문제로서 본다면 파에톤의 서사는 콤플렉스의 전형을 보여주는 서사인 반면, 할락궁이의 서사는 콤플렉스의 극복을 보여주는 서사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둘의 서사에서 이러한 차이가 빚어지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 서사적 변별점을 탐색해 볼 필요가 있겠다.

4. 할락궁이의 신성획득 과정을 통해 본 콤플렉스 극복의 의미

할락궁이와 파에톤은 둘 모두 동경하던 아버지의 세계에 도달하여 이상적 아버지의 힘을 자신의 힘으로 만드는 것에 성공한다. 할락궁이가 아버지와 조우하여 얻게 된 힘은 인간의 삶과 생사를 주관하는 꽃의 힘이었으며,¹⁸⁾ 파에톤이 획득한 힘은 만물의 가장 근원 되는 에너지라 할 수 있는 태양의 힘이였다. 이처럼 그들이 획득한 힘은 그들이 꿈꾸었던 이상적인

자기상에 알맞은 권능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둘의 손아귀에 쥐어진 초월적인 힘은 사용하기에 따라서 축복이 될 수도, 무서운 재앙이 될 수도 있는 ‘양날의 검’이다.

할락궁이는 꽃의 힘으로 자현장자의 온 가족을 미친 듯이 웃게 하고, 비탄에 빠뜨리기도 하며, 결국은 서로에 대한 미칠 듯한 증오로 상잔하도록 하였다.

아바님 이르는 냥 악심꽃광 환생꽃을 아전 장제칩일 오라시난 죽일팔로 둘러가니 할락궁이 말을 하뉘,

“제가 죽는 건 소원이 었이나 삼당 웨당이나 다 불러다 주옵소서. 흐실 말이 있으리다.”

“어서 걸랑 그리하라.”

삼당 웨당 다 몰아드니 웃음웃을 꽃을 노았더니 환천 웃음 벌어진다. 싸움꽃을 노았더니 싸움으로 벌어진다. 펠망꽃을 노았더니 삼당 웨당이 다 죽어간다.¹⁹⁾

이는 할락궁이 본인에게는 통쾌한 복수의 과정일지 몰라도 그 힘의 작용은 무서운 재앙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장자의 손에 죽음을 맞은 어머니를 살려내기도 하였다. 이는 할락궁이의 힘이 축복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할락궁이가 얻게 된 꽃의 힘은 사용하기에 따라 누군가를 죽일 수도, 살릴 수도 있는 양가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파에톤이 아버지에게 얻은 태양 마차 또한 마찬가지로이다. 태양의 에너지는 세상 만물의 성장과 에너지의 순환을 돕지만, 태양의 뜨거운 불길은 세상을 모두 불태워버릴 위험을 안고 있기도 한 것이다. 그들이 얻은 힘이

18) 서천꽃밭이나 그 속에 핀 주화에 대한 다양한 견해들이 있어 왔지만, 선학들의 견해들을 종합하였을 때, 적어도 서천꽃밭의 꽃이 인간의 삶과 죽음, 인간사의 다양한 감정과 국면들에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는 큰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보인다.

19) 현용준, 앞의 책, 114쪽.

이처럼 양가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것은, 인간의 발전을 추동하는 것이 콤플렉스일 수는 있으나, 콤플렉스에 의해 추동된 자기발전으로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이 매우 위태로운 일임을 보여주고 있는 듯하다.

실상 파에톤형 인간들의 이상적인 자기상 추구가 항상 나쁜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콤플렉스의 작용이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은 분명하다. 할라공이의 경우에도, 그가 장자 집을 떠나온 방식이 문제 될 수는 있으나 떠남 그 자체는 꼭 필요한 과정이었다 하겠다. 그가 언제까지고 장자의 아래 머물렀다면, 결국은 아무런 가능성도 실현하지 못한 채 결핍의 삶을 이어가다 죽음을 맞이하였겠으나, 장자의 집을 떠나옴으로써 그가 신성을 얻고 콤플렉스를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다.

실제로도 파에톤 콤플렉스의 긍정적인 측면에 대한 견해가 있다. 이레몽제(Lucille Iremonger)는 어린 시절에 애정 결핍을 겪은 재능 있는 남자아이들은 그때 촉발된 욕망 덕분에 크게 분발하여 성공의 절정에 도달하는 수가 더러 있다고 주장한다. 끊임없는 이상적 자기상의 획득 노력과 강박을 통해 파에톤형 인간이 사회적으로 두각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²⁰⁾

대표적으로는 미국의 42대 대통령 빌 클린턴을 들 수 있다. 그의 생부는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교통사고로 사망했고, 어머니는 그를 조부모에게 맡긴 채 간호사가 되기 위해 루이지애나 주로 떠난다. 그러다가 다시 돌아와 로저 클린턴(Roger Clinton)이라는 남자와 재혼한다. 하지만 그의 양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을 뿐만 아니라 가족에게 폭력을 행사했다. 그는 자라면서 사람들의 인정과 애정을 추구했으며, 항상 불안해했다고 한다. 친아버지의 죽음, 어린 시절 어머니의 부재와 양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했던 경험으로 인해 빌 클린턴은 대통령이 되기까지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 권력을 손에 넣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처럼 파에톤 콤플렉

20) J. 모러스, 앞의 책, 161쪽.

스의 작용은 콤플렉스 당사자가 사회적인 성공을 거두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다시 빌 클린턴을 예로 들자면, 그가 충동적인 애정 욕망을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하였다는 사실과, 그로 인해 미국 역사상 2번째로 탄핵을 당한 대통령이라는 사실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끊임없는 인정 투쟁으로 대단한 지위를 획득하였다지만, 해결되지 못한 그의 심리적 문제는 그가 그러한 지위에 올랐기 때문에 더욱 큰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도록 만들었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다.²¹⁾

이처럼 콤플렉스를 극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힘을 획득하게 되는 것은, 자칫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위험이 있다. 파에톤의 경우, 아버지인 헬리오스의 태양 마차를 얻었으나 그것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없었기에 세상을 불길로 태우다가 제우스의 번개에 맞아 비참한 죽음을 맞이해야만 했다. 이는 신화적 맥락으로서 인간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신의 영역에 도전하였다가 징치된 것으로 여길 수 있지만, 심리적인 문제로서 볼 때에는 콤플렉스를 극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힘을 얻게 된 결과로, 자신을 인정해주지 않았던 현실의 세상을 태워버릴 증오의 불길을 일으켰던 것일 수 있다. 그것은 자신에게 고통을 안겨준 부정적 현실세계를 완전히 배제함을 뜻하며, 자기 현실에 대한 고려 없이, 무리하게 이상적인 자기상만을 추구하는 자기 파괴적 행동양상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할락궁이의 경우에는 그토록 위태로운 힘을 얻고 나서도 그 힘을 사용함으로써 신성을 획득하는 결말에 이른다. 그렇다면 할락궁이의 성공과 파에톤의 실패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생긴다. 이를 위해 주목할 것은 할락궁이의 서사에서 신성의 획득이 일어나는 지점이다.

서사무가는 하나의 완전한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무가로, 특정 인물의

21) 광금주, 앞의 논문.

이야기로서, 발단, 전개, 결말의 구성요소를 갖춘 사건의 서술이다.²²⁾ 이처럼 완전성을 담보하는 서사무가, 특히 ‘본풀이’의 목적이 신의 내력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그 서술 목적이라 할 수 있는 신성의 획득은 모든 사건의 진행이 매듭지어졌을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라 보아야 하겠다. 그렇다면 서사무가인 <이공본풀이>에서 할락궁이의 신성획득이 일어나는 지점은, 아버지로부터 꽃의 힘을 얻었을 때가 아니라 가장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사건, 원강암이의 재생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보아야 한다.

앞서 이야기하였듯, 할락궁이에게 있어서 어머니의 세계는 부정적인 현실의 세계이며 그에 대별되는 아버지의 세계는 할락궁이가 추구하는 이상세계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할락궁이의 서사는 ‘현실세계에서의 탈주 -> 이상세계와의 조우 -> 현실세계로의 복귀’라는 구조를 지니게 되는데, 이 중 ‘현실세계로의 복귀’에 해당하는 부분은 파에톤에게 마련되어 있지 않은 서사이다. 특히 둘 중 할락궁이의 서사에만 마련되어 있는 이 부분에서 할락궁이 서사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신성의 획득이 일어난다는 것은 의미하는 바가 크다. 이를 콤플렉스의 문제로 놓고 본다면, 진정한 파에톤 콤플렉스의 극복은 이상세계를 향해 나아감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상적 자기의 추구를 통해 힘을 얻은 후에 부정적 현실세계로 돌아온 이후에야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파에톤의 경우, 그가 아버지의 세계로 떠난 이후에 어머니의 세계는 잊혀져버린 듯한 인상을 준다. 오로지 이상세계의 아버지를 만나기 위한 고난의 여정이 제시되고, 헬리오스의 궁전에 대한 동경, 조우하게 된 이상적 세계와 태양신인 아버지에 대한 경외만이 있을 뿐, 어머니로 표상되는 현실세계에 대한 돌아봄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그저 아버지의 태양 마차를 몰면서 자신을 업신여겼던 세상에 자신의 존재를 과시하고 싶었을 따름이다.

22) 서대석, 앞의 논문, 116쪽.

반면, 할락궁이의 경우에는 이상적 아버지상과 조우하기 위해 모진 고난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어머니의 세계에 대한 돌아봄이 나타난다.

실상 집을 떠나 아버지를 만난 순간에도, 할락궁이의 콤플렉스는 여전히 남아있었다고 보인다.

서천꽃밭 쉬양버들 상가지 우의 올라 보니 궁예청달 서천꽃밭 물주노랜
연못디 물 잉으레 오라시난 상손까락을 잡아 무꺼 입으로 께몰어네 즈지피
를 사피방을 연못테레 털어지우난 부정이 만히여 연못이 좇아진다.²³⁾

위의 인용은, 아버지를 찾아간 할락궁이가 아버지의 주의를 끌기 위해 손가락에 피를 내어 서천꽃밭 물대는 연못에 흘려보내니 연못이 부정을 탕다는 내용이다. 이는 아버지를 찾는 할락궁이의 마음에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나 분노의 마음이 남아있어 그 피가 저주의 성격을 띠게 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결국, 아버지를 찾기는 찾았으되 할락궁이의 심리적인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음을 뜻한다.

“느가 내 즈식이 분명하다.”
꽃감관은 스완을 불르고,
“나 먹단 식스상이나 이리 출려오너라.”
한락동인 말을 흐길
“아방이 받단 식스상을 받으라흐불로 어평 그 식스상을 받을 수가 십네까.”
“어평흐난 못받으켰고?”
“금시상 날 적이 아방 독므립에 앓안 흐번 놀아보도 못흐디 상을 받을 수가 십네까?”
“계건 내 독므립 우티 올라 앓이라.”
한락동인 사라도령 독므립에 올라앓안 풍오줍을 싸는 시늉, 벨벨 조세를

23) 현용준, 앞의 책, 112쪽.

문헌연 식스상을 받은 후젠.....²⁴⁾

위의 내용에서는 아버지와 조우한 할락궁이의 퇴행적 행동이 잘 드러나고 있다. 아버지의 지지와 애정을 받지 못하고 자란 할락궁이가, 아버지의 무릎에서 식사를 하고, 대소변을 지리는 시늉을 하는 등 갓난아기의 행동양식을 취하며, 어린 시절에 받지 못한 애정에 대한 보상을 구하고 있다. 이 또한 아버지의 부재로 인한 할락궁이의 콤플렉스가 아직 극복되지 못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라 하겠다.

오히려 아버지를 통해 현실세계에 남겨진 어머니를 돌아보게 되었을 때에 할락궁이의 심리문제가 의미 있는 해결의 시점에 다다를 수 있었다고 보인다.

가다보난 독막립 친 물이 있어져 그 물 넘어가고 가다 보난 존동 친 물이 션 그 물 넘어간고 가다 보난 목 친 물이 있어전 그 물 넘어가난 서천꽃밭이 근당한다.²⁵⁾

(중략)

“나 즈식이 분명허구나. 나를 좇아올 때에 독막립 친 물이 엇어냐?”

“이십테다.”

“그것이 느네 어머님 초대김 받은 물이로다. 존동 친 물 엇어냐?”

“이십테다.”

“그것이 느네 어머님 이대김 받던 물이로다. 목 친 물이 엇어냐?”

“이십테다.”

“그것이 느네 어머님 삼대김 받은 물이로다.”²⁶⁾

24) 해당 판본에서는 주인공 할락궁이가 한락동이로, 그 아버지인 원강도령이 사라도령으로 지칭되고 있음을 밝혀둔다. - 진성기, 『제주도 무가 본풀이 사전』, 민속원, 1991, 78-79쪽.

25) 현용준, 앞의 책, 112쪽.

26) 현용준, 같은 책, 113쪽.

위의 인용은 할락궁이가 서천꽃밭을 찾아가는 도중에 세 번 물을 건너며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상징을 만나게 되는 부분이다. 장자의 집에 머물러 있는 동안 할락궁이의 눈에 보인 어머니는 상전의 위세에 억눌린 삶을 살아가는 초라한 모습이었으며, 그러한 어머니의 모습이 할락궁이 자신의 모습과 겹쳐져 그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으리라 생각된다. 그러므로 할락궁이에게는 억압의 공간인 장자의 집도, 자신의 초라함을 비추고 있는 어머니의 존재도 떠나가야만 할 대상일 뿐이었다. 그러나 원강암이는 결코 나약한 여인이 아니었다. 장자의 끊임없는 동침 요구를 지혜로서 극복할 줄 아는 여인이었으며, 장자가 풀어놓은 사나운 개로부터 할락궁이의 안위를 지킬 수 있었던 것도 원강암이가 마련해준 메밀 범벅에 의한 것이었다.²⁷⁾ 또한, 위의 인용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재차 삼차로 이어지는 목숨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할락궁이를 위해 그가 간 곳을 밝히지 않고 죽음을 당할 수 있을 만큼 강한 어머니가 원강암이었다. 할락궁이는 몰랐지만, 원강암이는 죽음에 이르도록 보호자로서의 역할을 완전하게 감당하였으며, 할락궁이가 그토록 바라마지 않던 최고의 애정을 그에게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다.

할락궁이는 무릎에 차는 물, 잔등에 차는 물, 목까지 차는 물을 보았지만, 그 의미를 알 수는 없었다. 어머니의 사랑과 보호가 늘 이어져 왔지만, 콤플렉스로 인해 눈이 가려진 할락궁이는 그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이다. 그러다 아버지를 찾는 여행, 이상적 자기상을 찾는 여행의 과정에서 만난 아버지에게 의해 그 의미를 깨닫게 된다. 이때에 할락궁이를 깨우쳐 준 아버지란 실제의 아버지일 수도 있지만, 어쩌면 드넓은 세상으로 나아가는 중에 만난 세

27) 이에 대하여, 메밀범벅은 할락궁이가 먼저 모친에게 요청한 것이고, 이를 통해 위기를 벗어나고 있기에 할락궁이의 타고난 지혜나 신성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에도 할락궁이의 발상이 원강암이의 손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원강암이가 할락궁이의 지혜나 신성이 발휘될 수 있는 기반임을 보여준다.

계의 커다란 진리를 말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인간만사의 의미가 꽃으로 피어나는 서천꽃밭의 관리자라는 것도, 보편적 인류의 커다란 아버지로서 원강도령이 지닌 성격을 말해주고 있는 것일 수 있다.

이에 할락궁이는 자신이 미처 몰랐던 어머니의 위대함을 깨닫고, 자기 존재의 기반이자 자신의 삶을 가능케 하는 근원으로서 어머니의 현실세계가 지닌 의미를 재발견하게 되었다. 그러한 깨달음으로 인해 할락궁이는 아버지가 전해 준 꽃의 힘, 인간 삶의 본질에 대한 깨달음을 온전히 제어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에 이상적인 자기상을 추구하며 힘의 획득에만 열을 올리던 할락궁이가, 삶을 온전케 하는 현실의 기반을 인식하고 죽음의 상태에 놓여있던 어머니의 현실세계를 회복시킴으로써 온전한 자신의 삶을 재구성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머리 그찬 청대왓디 데껴붙고 즌동 그찬 흑대왓디 데껴두고 독막뵈 그찬 청새왓디 데껴시난 어머니뵈 뵈를 도리도리 못아놓고 도환생꽃을 노난 “아이, 뵈즘이라 오래도 잤저.” 머리 글거, 어머니뵈 살아온다.²⁸⁾

어쩌면, 어머니 원강암이를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은 할락궁이 본인의 문제인지 모른다. 자신의 심리적 문제를 감당하지 못하고, 자신의 근본적인 삶의 기반이라 할 수 있는 어머니의 현실세계를 배제하고 외면해버림으로써, 할락궁이의 현실적 기반은 무화되고, 현실적 삶의 기반을 상징하는 어머니 또한 상징적인 죽음을 맞이하였던 것이다. 그렇다면 어머니를 죽였다는 장자의 존재는, 실제의 존재일 수도 있지만, 할락궁이의 내면에서 심리적 억압기제로 작동하는 콤플렉스 그 자체일 수도 있다.

아버지의 자리가 비어있는 상황에서, 할락궁이가 직면하게 되는 심리적

28) 현용준, 앞의 책, 114쪽.

결핍은, 외부에서 할락궁이의 콤플렉스를 자극하는 장자의 존재로 형상화되어 그 내면에 자리 잡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파에톤형 인간이 언제나 스스로에게 무리한 노력을 강요한다는 것을 감안할 때, 실현 불가능한 명령으로 할락궁이를 괴롭혔던 장자의 모습이 할락궁이의 콤플렉스가 형상화된 것이라는 가정도 가능하다 생각된다. 그렇다면 수레말망약심꽃으로 장자를 징치하는 할락궁이의 모습은, 이상적인 자기상의 구축을 위한 끊임없는 연마의 과정에서 얻은 깨달음의 힘으로 자신의 콤플렉스를 무너뜨리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된다.

자신이 잘못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어머니의 사랑과 보호를 받는 귀한 존재이며, 자기 자신으로서의 현실적 삶이 충분히 의미 있는 것이라는 깨달음을 얻게 된 할락궁이는, 자신의 내면에서 자신을 억눌러 현실을 부정하고 외면하게 만들었던 장자, 즉 파에톤 콤플렉스의 형상을 파괴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삶에 대한 재인식(아버지를 통한 깨달음)의 과정을 통해 콤플렉스를 극복하고(장자의 징치), 온전한 삶을 다시 구축하게 되는 순간, 서사상으로는 어머니의 재생이 이루어지는 순간에 할락궁이는 온전히 자신의 콤플렉스를 극복하게 되었다. 그리고 바로 이때에 그는 신성을 얻게 되는 것이다.

5. 결론

본 연구는 〈이공본풀이〉를 접함에 있어 불편함의 요소로 작용하고 있던 주인공 할락궁이의 폭력성이나 잔인성, 좌충우돌하는 행동양상의 이유에 대해 심리적인 차원의 서사 접근으로써 구명해 보고자 한 것이다. 이에 양육 배경이나 성장 환경에 의한 애정결핍이 문제가 되는 파에톤 콤플렉스의 개념으로써, 친부의 부재상황에 기인하여 겪는 할락궁이의 심리적 문제와

그로 인해 추동되는 할락궁이의 서사를 세세하게 살펴보았다. 이를 통하여 할락궁이가 보여주는 거친 행보의 이유가 그의 콤플렉스에 의한 것일 수 있으며, 그러한 콤플렉스의 극복이 이루어지는 지점에서 할락궁이의 서사가 성공으로 귀결되어 신성획득이라는 결실을 맺게 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무엇보다 중요한 발견은, 할락궁이의 서사에서 신성의 획득과 콤플렉스의 극복이 이루어지는 지점이, 이상적 자기상을 구축할 힘을 얻기 위해 아버지의 세계로 떠났던 할락궁이가, 다시금 어머니의 현실세계로 돌아와 죽음의 상태에 놓여있던 어머니를 재생시킨 순간이라는 점이다. 스스로의 결핍을 해결하기 위해 아무리 힘을 기르고 자신을 포장하더라도 자신의 현실적인 모습을 직시할 수 없다면, 태양 마차를 몰며 자기 자신과 자신의 삶의 공간을 불태우고 말았던 파에톤처럼 스스로를 괴롭히고 망가뜨리는 결과로밖에 이어지지 못한다.

누구나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는 결핍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다. 그러나 그러한 결핍으로 인해 고통을 받게 되거나, 결핍을 극복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해 나가는 것은 결코 외부적인 조건에만 그 원인이 있지 않다. 결핍으로 인한 심리적인 억압은 많은 부분 오히려 자기 자신이 만들어낸 콤플렉스에 의한 것이다. 결국, 자신의 결핍을 직시하고, 그러한 결핍의 상황에서도 스스로의 삶의 가치를 찾으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할락궁이의 서사를 통해 살펴보았듯이, 자신의 결핍에서 눈을 돌리고 외부적인 조건이나 타인의 인정을 통한 만족감으로 콤플렉스를 극복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중국에는 스스로의 결핍을 인정하고 직시하며, 그러한 결핍을 채워나가기 위한 진지한 노력이 있어야 함을, 〈이공본풀이〉는 할락궁이의 콤플렉스 극복과 신성 획득의 과정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 강정식, 「제주무가 이공본의 구비서사시적 성격」,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석사학위논문, 1987.
- _____, 「이공본풀이」, 『한국음악』 제31집, 국립국악원, 2000.
- 곽금주, 「인정받고 싶은 심리: 파에톤 콤플렉스」
- 김대숙, 「여인발복 설화의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8.
- 김창일, 「이공본풀이계 서사체 연구」,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 노영근, 「신화와 친부탐색 모티프」, 『어문학논총』 제22집, 국민대학교 어문학연구소, 2003, 129-149쪽.
- 류효철, 「서천꽃밭의 형상과 의미 연구 : <이공본풀이>와 <삼승할망본풀이>를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 문무병, 『제주도무속신화』, 칠머리당굿보존회, 1998.
- 미래컨텐츠창작연구소, 『콤플렉스 - 세상을 보는 프레임』, BOOK21, 2013.
- 사재동, 『불교계국문소설의 형성과정연구』, 아세아문화사, 1977.
- 서대석, 「서사무가연구」, 『국문학연구』 제8집, 서울대학교 국문학 연구회, 1968.
- 신동훈, 『살아있는 우리신화』, 한겨레출판, 2004.
- 신연우, 「여성 담당층 관점에서의 <초공, 이공, 삼공본풀이>의 문학·사상의 의미망」,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제21호,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0, 223-257쪽.
- 오대혁, 「「안락국태자경」과 「이공본풀이」의 전승관계」, 『불교어문논집』 제6집, 한국불교어문학회, 2001, 221-276쪽.
- 오비디우스 저, 이윤기 역, 『변신이야기』1, 민음사, 1998.
- 윤찬주, 「<이공본풀이>의 서사구조 연구」, 인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1.
- 이수자, 「무속의례의 꽃장식, 그 기원적 성격과 의미」, 『한국무속학』 제14집, 한국무속학회, 2007, 407-442쪽.
- _____, 「제주도 무속과 신화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9.
- _____, 「한국 무속신화에 나타난 모신상과 신화적 의미」, 『이화어문논집』 제16집,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어문학회, 1998.
- 이지영, 『한국의 신화이야기』 도서출판 사군자, 2003.

장주근, 「서사무가의 시원과 민속문예사상의 위치」, 『한국문화인류학』 제5집, 한국문화인류학회, 1973, 5-32쪽.

_____, 『제주도 무속과 서사무가』(개정판), 역락, 2001.

적송지성·추엽용, 『조선무속의 연구』 상, 동문선, 1991(1937년 초판).

정진희, 「제주 무가 「이공본풀이」의 신화적 의미에 관한 일고찰」, 『국문학연구』 제7호, 국문학회, 2002, 13-65쪽.

진성기, 『제주도 무가 본풀이 사전』, 민속원, 1991.

현용준, 『풍속무음』, 제주대학교, 1994.

_____, 『제주도무속자료사전』(개정판), 도서출판 각, 2007.

* 이 논문은 2013년 10월 21일 투고되어 12월 2일 심사 완료하고 12월 12일 게재 확정함.

<Abstract>

A Study on 〈igongbonpuli〉 as a Narrative to Overcome Complex

Cho, Hong Youn(Konkuk University)

This study was to explain that on the assumption of the originality of this myth, the rough behavior of Hallakgungi shown in 〈igongbonpuli〉 was related to the universal human psychological problem, complex. On that account, in terms of the concept of Phaeton complex, psychological problem of Hallakgungi due to absence of his father and the narrative of Hallakgungi inspired by this were looked into in detail. Through this research, it was confirmed that the reason for the rough behavior which Hallakgungi showed was his complex. In addition, it was confirmed that the narrative of Hallakgungi at the point where the complex was overcome obtained sacredness in order to secure success.

The important thing is that in the narrative of Hallakgungi the acquisition of sacredness and overcoming of complex were achieved at the moment he returned to the real life of his mother again and resurrected his dead mother. Hallakgungi returned to the space he denied and left for himself again, and after all got rid of the elements that oppressed him in the space and by doing so he could overcome his complex. This shows that it is important not to get out of the environment which causes complex to you, but to realize the value of the space for your real life and make efforts to improve the reality.

Like this the human psychological problems depend not only on outside conditions,

As the narrative of Hallakgungi shows, to overcome complex with feeling of satisfaction through external conditions or acknowledgment by other people has a limit. Through the process of Hallakgungi to overcome his complex and to obtain sacredness, <igongbonpuli> shows that after all you should admit and face up to your own deficiency and should make earnest effort to compensate for such deficiency.

Key words : igongbonpuli, Hallakgungi, Phaeton complex, complex, myth